

북부신문

강북구의회 의원 세미나 개최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바뀔 듯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지난 8월 23~24일 1박2일 동안 양명 한화콘도에서 의원 세미나를 열고 앞으로 있을 의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대화가 단합을 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제6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새로이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 의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지식 습득, 초·재선 의원간의 단합, 그리고 의원 서로간의 경험 및 지식을 나누는 공유의 시간으로 활용됐다. 첫날 도화학자이자 여정을 쓴 의원들은 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자 전남대 행정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오재일 교수의 '지방자치와 지역 정책'을 주제로 지방 자치 및 의회민주주의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기법, 효율적인 의원 입법 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의를 들었다. 오 교수는 "현 지방자치자는 의원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들을 위해 대표로 선출 된 만큼 최선을 다해 행

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식 전 자문가 시간에는 북구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획 날리는 시간도 마련됐다. 다음날인 24일에는 재선의 최선 의원들이 상을 담당 아명심 의원들을 대신 발표자로 나서 '지방자치와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방향'을 주제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기법을 들려줬다. 최 의원은 "본회의에서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벤트를 준비해 도표나, 현장 사진, 동영상 등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제시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의원의 역할'에 대해 발표자로 나선 박문수 의원은 제2·3대 구의원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원이 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는 욕을 많이 먹어야 하는 의원활동은 답답하다는 증거이므로 대인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심도 있는 질문으로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줄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 5대 의원들의 조례안 현황이 제정 18건, 개정이 12건으로 이번 6대에서는 보다 많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김동식 의원이 구정질문 및 답변과 관련, "현재의 일괄 질문, 답변보다는 일문일답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자 유근성 의장은 "서울시는 이미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의회가 결정하면 되는 일인 만큼 심도 있게 논의 하겠다"고 대답해 향후 구정 질답의 형식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유 의장은 "좋은 일정이었지만 서로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오늘의 공부와 의정 활동에 서 밀착됨으로써 작용할 바"라고 당부했다.

이은상 / 기자



시정선문

강북구의회는 지금 공부 중

예산안 심의·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세미나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제14회 입시회의 추경안 심의를 비롯, 본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급박한 의정현안을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지난 23일~24일 1박2일 일정으로 의원들의 사전 협업을 위한 '의

원세미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명 한화콘도에서 실시된 이번 세미나는 제6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의원들을 위해 마련, 의정활동을 위한 지식의 습득, 초·재선 의원간의 단합, 그리고 의원 서로간의 경험 및 지식을 나누는

공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날 일정을 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자 전남대 행정대학원 원장인 오재일 교수의 '지방자치와 지역 정책'을 주제로 지방자치 및 의회 민주주의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기법, 효율적인 의원 입법활동 등을 내용으로 의정활동 지식이 전달됐다.

또 이틀째 날에는 제2,3대 구의원 박문수 의원이 본회의 체계를 토대로 '지방자치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 3선 의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 좋은 반응을 얻었다.
 白仁淑 기자

땀방울로 하반기 의정활동 준비

강북구의회, 1박2일간 의원세미나 실시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제 144회 임시회를 사흘 앞둔 23~24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 한화콘도에서 의원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제6대 강북구의회의 개원으로 새로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의원들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지식의 습득, 초·재선의원간의 답합과 경험 및 지식을 나누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여장을 풀고 의원들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자 전남대 행정대학원 원장 오재일 교수로부터 '지방자치와 지역 정책'을 주제로 △지방자치 및 의회 민주주의의 이해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심의의 기법 △효율적인 의원 입법활동 등에 관해 수업을 받았다.

다음날 24일 오전 박문수 의원은 자신의 오랜 의정경험을 토대로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3선의 원으로서 가진 노하우를 나눴으며,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오재일 교수가 강북구의원들에게 열린 강의를 하고 있다.

재선의원인 최선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방향'을 주제로 행정사무 감사 및 구정질의회 대한 노하우를 전달했다.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의원들에게 다양한

지식의 전달과 서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였다.

〈하성수 기자 sungshuh@hermail.net〉

강북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개최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제144회 임시회를 8월26일 ~ 9월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2회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상정된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6대 의원 구성 후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약 154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며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 강북구의회 민생 행보의 시작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구의장 동정

구강보건센터 개소식 참석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25일 오후 1시40분 강북구보건센터에서 저소득층 구강 보건사업을 위해 개관한 '강북구 구강보건센터' 개소식에 참석,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결산특위·민생처리 관련 특위 구성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본승 의원, 김도연 의원, 김동식 의원, 이백균 의원, 이종순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김도연 의원, 김동식 의원, 박문수 의원, 이백균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에서는 박문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도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문수 위원장은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집행부의 불관·부당한 민원처리가 있는지 살펴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본승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도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27일부터 각 위원회별 안건 및 추정예산안 심사와 현장활동을 병행하면서 임시회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은 8월 20일

(금) 15:30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강북구지회가 주최하는 「제47회 전국



자유수호 문병 강북구 예산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대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했다.

우리일보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최

강북구의회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제 144회 임시회 회기를 개최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구본승 의원, 김도연 의원, 김동식 의원, 이백균 의원, 이종순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김도연 의원, 김동식 의원, 박문수 의원, 이백균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본회의 후 있는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에서는 박문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도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송준길 기자